



## 설문대 소식

1. 연말 정산용 후원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우편물을 못 받은 회원분들은 도서관으로 연락바랍니다.
2. 남읍초등병설유치원에서 1년 동안 진행한 농촌 지역 병설 유치원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활동은 12월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22명의 똘똘똘망한 친구들이 설문대 선생님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이 책읽어주기 활동을 기쁘게 합니다.
3. 그림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문화예술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강으로 설문대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책미술관을 꿈꾸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설문대도서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밖' 문화예술프로그램인 '토요일엔 뚜벅뚜벅 자연유람단'을 진행했습니다. 수목원의 자연과 어



울려 음악과 미술, 책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뚜벅이들의 공연을 끝으로 30주차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뚜벅이들의 걸음을 설문대가 응원합니다.

5. 후반기에 진행되었던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12월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접수받고 3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설문대에 보내는 편지

### 오정택 그림책작가

11월 28일, 나는 제주도에도착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이르게 공항에 도착했다. '그림책 문화 예술 활동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한 강의의 맡았다. 훌륭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게 사실 나는 터무니없는 소양을 가졌다. 어쨌든 두 시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실 며칠을 보냈었는데 공항에 늘어져있는 아자수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불편한 공포는 순간 까맣게 없어져 버렸다. 이미 3번 정도 제주도에 내려와 보았지만, 혼자, 또 일과 관련된 방문은 처음이라 그런지 어릴 적 오던 제주와는 다른 설레임이 있었다. 공항에 마중 나와 주신 관장님의 격이 없는 편안한 인솔로 즐겁게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도서관의 작은 규모와 분위기가 어색했고, 그것은 처음 내 행동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딱딱하리라 기대했던 도서관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편했을 것 같았다. 강의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두 아이가 엄마와 도서관에 놀러왔다. 당연히, 원하는 책을 찾거나, 읽으려 혹은 무엇인가를 얻으려 왔을 것이다. 관장님이 남자꼬마를 무릎 위에 앉히고 책을 읽어 주었다. 기가 막힌 구연동화는 아니었지만 애들과 공감하시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잠시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장난을 치며 키득 키득 거리고 있었다. 집중하지 않는 독서 시간 속에 어느덧 삼촌이었고, 동네 동생이 되었다. 한 동안 도서관 바닥은 놀이터가 되었다. 그냥 웃으며 툇툇했다. 아이들은 한 권의 책에 그리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건들어 보았다. 그림을 그리고도 했고, 꼬마가 읽은 책이 내가 그린 책이라는 관장님의 소개

때문인지 날 의식의 눈으로 찌러보기도 하고 강의 준비 중인 컴퓨터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내 스파이더맨 USB 고리도 건드렸다. 그들이 도서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열었는지 사실 나는 모른다. 그 아이들과 엄마는 결국 도서관에 그냥 놀러온 것 같았다. 그렇다. 도서관이란 사실 이런 것이었나 보다. 아이들과 책을 사랑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나도 몰랐다. 내 어릴 적 다닌 도서관의 기억이 이렇지 않았고, 내 성장한 후의 도서관도 이렇지 않았다. 이 도서관이 내 머리속에 있는 도서관의 이미지와 달랐지만, 아이들에게 도서관이란 곳은 마음에 이렇게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은 목적을 위해 마음의 무게를 지고 들어가는 차가운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얼마 전에 내 아이와 갔었던 그럴싸한 도서관이 떠올랐다.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고,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불안해했던 내 모습도 기억났다. 내 옆의 가족도, 내 뒤, 내 앞의 가족들도 우리 가족과 같았다. 내가 이상적인 마음에 아이들과 자유롭게 도서관을 즐겼더라면 분명 눈총 받았을 거다. 내가 설문대 도서관에서 가졌던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횡설수설 했던 2시간에 거짓말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놀다간 그 아이들과 그때의 분위기는 너무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다. 남자꼬마에게 망가져서 낡은 스파이더맨 USB고리를 때서 주었다.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나를 만났었다는 기억을 해달라는 뜻도 아니었다. 그냥 나도 이 도서관이 주는 편하고 따뜻함이 같은 것 하나 더 얹혀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공간이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오랜만에 경험한 좋은 날이었다. 바라건데, 오래 뒤 내 아이의 도서관에 대한 기억도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오정택 선생님이 보내주신 싸인 책과 그림, 감사합니다! 설문대 친구들과 잘 보겠습니다.)





## 꽃다락 토요일학교 아이들의 발자국...

### 비 오는 날 내나무

신지예(한라초3)

비 오는 날  
우리는 비옷 입었는데  
내 나무는 폼,  
소테나무 온 몸으로 비를 맞는다

### 물푸레나무

김지성(등광초4)

내 나무 물푸레나무 탈모다  
나뭇잎도 떨어지고  
내 나무는 혼자다  
아무도 없는데 털머위꽃이 피었다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 빛속

김유림(신광초3)

빛속에서도 끄떡없다. 내 나무  
언제나 밝다. 내 나무는  
가을비에 추울 텐데  
언제나 밝은 올벗나무  
내 나무

## 토요일에 만나는 신기한 세상

문지연(교대부설 4)

매주 토요일, 나는 다른 세상과 만난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머리에겐 상상꽃이, 마음에는 행복꽃이 필 수 있는 세상이다.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것은 내 나무 개미우미이다. 원래 내 나무의 정식명칭은 '감탕나무' 이지만, 개미들이 많이 살며 서로 도와주고 있어서 '개미도우미' 라는 뜻의 '개미우미' 로 애칭을 지어주었다. 나는 늘 개미우미와 대화를 한다. 개미우미를 안아주면 개미우미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나는 개미우미의 줄기를 쓰다듬어주며 말을 해준다. 특히 개미우미는 '새싹' 까지 있어서 더 더욱 좋다. 커다랗고 길쭉한 개미우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새싹은 언제나 내 얼굴에 미소 짓게 한다. 개미우미는 정말 특이한 친구이다. 다른 나무들이 쭉쭉 키가 커 갈 때, 개미우미는 여러 곳에 가지들 치며 여행을 한다. 다른 나무들이 단풍으로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개미우미는 겸손하게, 하지만 위엄 있게 지낸다. 이런 것이 개미우미의 가장 큰 매력이다. 사실 나는 '자연' 에 대해 좀 낯설었다. 처음 자연유람단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식물들, 그 식물에 얽힌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뭐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많았다. 유람단에서 활동하면서 새콤달콤 맛있는 볼레낭도 먹어보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흙 속에 슬라이딩도 해보고, 예쁜 환삼덩굴 브로치와 여귀 꽃다발도 만들어보고.....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 것도 많다.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먹으면 병 걸릴 것 같아서, 손이 더러워질까봐 하지 못했던 것들, 해보면 할수록 자연과 친해질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이 많았었는데..... 겉모습을 생각하느라 자연과 친해지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참 후회가 된다.

매주 토요일 나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며 자연을 알아간다. 알면 알수록 속에 있는 내가 보이고, 알면 알수록 내 발짝 더 다가가고 싶은 것이 '자연' 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가장 기대하는 수업도, 가장 기다리는 수업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수업도 '뚜벅뚜벅 자연유람단' 수업이다. 매주 토요일 만나는 신기한 세상! 오늘도 나는 어서 토요일이 되기를 기다린다.

## 11월 3일 토요일 축구하기 딱 좋은 날!

오지현(남광초 5)

"덩굴공 내가 간다!"

오늘은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뚜벅뚜벅 자연유람단 15차시 수업중 8차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수목원에 제일 먼저 오면 내 나무에게로 간다. 오늘은 내 나무에 먼저 가기 전에 몸풀기를 하고 갔다. 몸 풀기는 한 발을 들어서 몇 분 동안 서 있거나 상대방 팀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만목원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 시험에서는 볼레낭팀이 이겼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나무에게 간다. 내 나무에서 미션은 자기 소망쓰기다. 나는 소망 3가지를 썼지만 비밀이다. 오늘의 주제 수업이 있는 만목원으로 향해 갔다. 먼저 첫 번째 미션은 퍼즐 맞추기다. 퍼즐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몸 풀기에서 이긴 볼레낭 팀이 먼저 고를 수 있다. 우리팀은 송악을 골랐다. 모든 팀이 퍼즐을 골랐다. 퍼즐 맞추기에서 이기면 축구 상대팀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퍼즐 맞추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드디어 몇 분 뒤 퍼즐을 다 맞춘 팀이 나오고 있었다. 우리팀 볼레낭팀도 거의 다 맞추고 있었다. 이제 최대한 빨리 퍼즐을 맞춘 식물에게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야 했다. 우리 팀은 다하고 뛰었지만 아쉬게 드룩국화 팀이 이겼다. 우리팀은 실망 했다. 드룩국화는 축구 상대팀을 숫자가 작은 우리 볼레낭으로 선택을 했다. 우리 팀은 실망했다. 드디어 퍼즐 맞추기가 끝나고 자연생태학습관 앞에 있는 잔디밭으로 갔다. 첫 경기는 드룩국화 vs 볼레낭이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 관장님이 심판을 봐주셨다. 준비~~시~~작! 공을 가운데 놓고 시작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볼레낭팀 류한기가 공을 넣었다. 우리, 한 골을 넣으니 든든했다. 전후반전이 없으니 우리는 이제 공을 막으면 된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볼레낭이 이겼다. 다음은 강생이풀 vs 구름비낭이다. 이 경기는 구름비낭이 이겼다. 1위는 볼레낭 2위는 구름비낭 3위는 드룩국화 4위는 강생이풀이다. 축구공을 덩굴을 이용하여 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이었다. 정말 신기하고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공이다. 하지만 남자 친구들이 힘들어 좋아 삼다수병까지 축구공으로 대체하면서 까지 축구를 했다. 우리팀은 승부차기까지 해서 이겼다.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토요일이면 너무나 즐겁다. 오늘은 어떤 미션을 할까 하면서 수목원을 향한다. 이 수업을 위해 애쓰시는 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 제주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그림책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행복한 미술관의 한 장면이다. 엄마의 생일날 엄마는 가족 모두가 미술관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엄마를 제외한 식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빠와 형은 마지못해 따라나서지만 텔레비전에서 하는 축구경기를 못 본다고 투덜댄다. 처음으로 가본 미술관, 으리으리한 모습에 우리는 긴장하고 뻘뻘하게 걸터있는 옛날 그림들은 지루하게만 보인다. 한 아이에 비친 미술관의 모습이 다. 체험문화가 발달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범한 가정에게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은 흔한 일상이 아닌 것 같다.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다투며 자기를 봐달라고 유혹하지만 대체 무엇이 유명한지 모르겠다는 표정들. 사람들에게 떠밀리며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 중에 작가의 그림세계를 이해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관람자들을 주눅 들게 하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가족들이 하루 종일 놀아도 지루하지 않은 공간이 새롭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서울, 청주, 그리고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림책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모임이 그것이다. 지난 12월 7일까지 우리 도서관에 수요일 저녁이면 35명의 지역단체 활동가들이 모였다. 국내 저명한 그림책작가, 평론가, 문화예술전문가들을 초빙해 뜨거운 논의를 이루면서, 시민이 설립주체가 되는 그림책과 관련된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 세계의 어느 그림책미술관, 그림책마을을 보아도 시민들이 설립의 중심이 되는 곳은 없다. 대부분의 그림책미술관 또는 그림책마을은 유명 작가의 이름을 딴 곳이거나 그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림책미술관을 준비하자고 논의를 시작한 우리들은 이와 다른 의미로 건립 필요성을 찾고 있다. 그림책미술관의 소장 목록을 구성하는 일뿐 아니라 건립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직, 그림책미술관의 전시 기획과 운영 등 전 영역에서 더욱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작가를 위한 그림책미술관이 아닌 모든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그림책과 관련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림책미술관을 짓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미술관’에 대한 우리 제주만의 ‘이야기’를 찾



아내는 일이다. 그림책미술관이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대한 이야기가 제주의 그림책미술관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림책미술관을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책미술관의 시작과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제주그림책미술관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림책미술관의 완성은 먼 미래에 실현될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낀다. 마치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책을 읽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며 그 과정을 견뎌냈던 것처럼 완성된 그림책미술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목이 메어온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지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 것인지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국에 어린이도서관이 없었던 10여 년 전과 지금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듯이 그림책미술관이 지어질 5~10년 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제주지역에 그림책미술관 건립은 시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의 경험은 분명히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책이 우리들과 함께 보는 그림책

###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글/그림



스스로 모인 천 명의 첼리스트가 기적을 연주하는 음악회. 1998년 11월 29일 일본 고베 월드 기념홀에 전대미문의 첼로양상들이 시작되었다. 4세 어린이부터 88세 노인까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첼리스트 1013명이 1013개의 첼로만으로 콘서트를 연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이세 히데코도 천 명의 첼리스트 중 한 명이었다. 고베대지진의 사망자를 추모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뜻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나이와 지역을 초월해 스스로 모인 천 개의 첼로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울려 감동을 준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상실감,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공감일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감싸 안으려는 노력. 작가는 그 소중하고 절실한 마음을 천 개의 첼로 소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노래로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담담하지만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인간의 모양을 한 악기, 인간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악기, 첼로. 첼로를 켜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작가의 말처럼 아픔을 간직한 나로부터 모두에게 향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감동을 주기 때문인지 모른다. 바람결에 실려 오는 첼로 선율에 마음이 정확해지는 책이다.

- \* 지역과 시대를 넘어 상실감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 \* 우리가 경험한 힐링에 대해?
- \* 이세 히데코의 다른 그림책도 이야기 나눠요.

**\* 책과 노는 아이들 모임**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4학년 이상, 매주 목 저녁7시)
- 두린아이 속닥속닥 그림책놀이 (6~7세 대상)

**\* 주말 책 놀이터**

- 그림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초등1~3학년, 매주 토 오전10시~11시30분)

**\* 책읽는 여우들**

- \* 찾아가는 도서관-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책방'
- \* 행복한 책나들이 (농촌 병설유치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11월)
- \*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 \*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2013년 전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초등4-6), 그림과 함께하는 역사여행(초등1-3), 두린아이 속닥속닥 책놀이(유아6-7세)
- ▶접수일자: 2월 21일부터 선착순 접수

**후원해 주신 분들**

**- CMS 후원인 명단 -**

강경남 강경림 강경희 강동근 강미수 강만숙 강문정 강병관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수민 강수선 강순연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인숙 강지니 강찬구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만성 고명옥 고미경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영미 고영순 고유경 고유숙 고유석 고익숙 고정희 고현권 고희영 김경미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영심 김기욱 김광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조 김봉진 김봉진 김상림 김성호 김성환 김인자 김세희 김소희 김수옥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영미 김영민 김영완 김오순 김옥희 김용남 김용식 김용택 김유신 김유정 김윤자 김인영 김재윤 김재환 김정금 김정은 김중현 김주원 김소연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현석 김현정 김호숙 김효정 김효정 김희정 민동환 문계양 문금선 문미혜 문봉준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서은영 서종석 성영희 성정선 송미경 송명혜 송시우 송지영 송춘미 신대성 신우용 신호철 안연하 안은희 양가애 양석현 양연심 양용선 양인희 양재성 양정옥 양정원 양정은 양중수 양진건 양호선양희연 양희선 양희정 양희연 오금숙 오신순 오승룡 오승훈 오영민 오정민 오정심 오정임 오중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이상임 우지숙 유만중 유종상 윤경숙 윤경희 윤중호 윤정환 윤지현 윤희순 이경선 이경의 이경희 이광복 이덕송 이상현 이상희 이상영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건 이창식 이현동 이현백 이혜연 이호석 이호열 이희숙 임경률 임권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임형주 장미애 장소영 장수명 장은정 장현선 정갑열 정동진 정미혜 정명선 정영수 정영우 정윤중 정윤탁 정윤탁 조용숙 좌순영 좌순자 좌춘자 지희정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정실 진창욱 차지연 채정심 채희영 최미자 최선희 최준진 최형규 한길숙 한상희 한예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명옥 현오정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효정 (주)제주관광가이드 (이상 239명)

- 새롭게 CMS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들: 문봉준, 신대성, 김주원, 김봉진, 김소연, 최선희
- 따뜻한 마음을 주신 분들: 문지연맘 향긋한 유자차1병, 공연날 흥재혁맘 비피더스와오예스, 박지윤맘 카스타드와쥬스, 문승일맘 한방차, 박이든맘 썩쟁빵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 ❖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독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 우리 도서관은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약 10,300여권의 도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 ❖ 도서관 운영은 후원자 분들(약 250여명)의 CMS 자동이체 후원금과 강좌 참가 수입으로 신간도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에 알차게 쓰이고 있습니다.

설문대를 이용하려면...

- 1.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 ~ 오후7시 (동절기는 6시까지)(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 2.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은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 회원으로 가입되면 책 대출은 무료이고 강좌는 무료와 유료이 있습니다.
- 3. 도서대출** 안내한 사람이 3권, 한 가족이 한번에 6권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1주일입니다.  
\* 대출 기한을 넘기면 그 날은 대출이 안 됩니다. 다음날 다시 오셔야 합니다.
- 4. 후원안내**
  - 우리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되는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구입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손길이 필요 합니다.
  - 책나무 키우기 CMS 자동이체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시는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